

#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에 관한 소고(小考)

본 내용은 (가칭)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제정 공청회에서 발표된 자료로 국내에서는 쉽게 접해보지 못하던 내용이어서 2회에 걸쳐 미소공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편집자

정 광 섭 서울산업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방 승 기 경민대학 건축설비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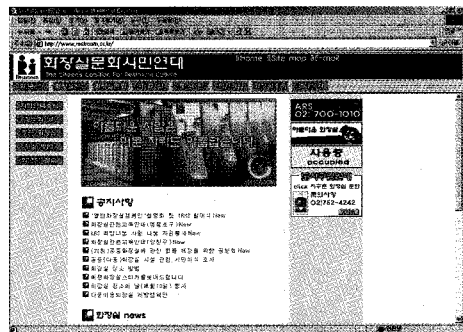
## 1. 머리말

화장실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간으로서, 생리 위생을 위한 단순한 공간의 기능에서 점차 쾌적성 및 휴식 공간의 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다. 일반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더러운 곳, 냄새나는 곳이라는 화장실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외국의 예에서처럼 화장실이 생활, 문화공간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화장실은 일반적으로 개인용(Private Toilet)과 공중용(PTS, Public Toilet Space)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화장실을 구성하고 있는 위생기구도 여러 가지가 있어 제한된 지면을 통해 이들을 모두 기술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주제에서는 주로 공중 화장실에 대한 것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공중 화장실도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역이나 공항의 화장실은 물론 공원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있고, 학교나 공장 및 기숙사처럼 이용자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반(半)공중용(Semi-Public) 공간도 있다. 이와는 달리 공중 화장실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는 우리 나라 법규에 제정되어 있는 공중 변소라고 하는 것이 있다. 공중 변소는 화장실 관련 법규인 건축법규, 오수 분뇨 및 처리에 관한 법규에 그 설치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법에 규정

되어 있는 공중 변소란 공원이란가 거리등에 설치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외 건물에 설치되는 화장실은 실제로 공중 화장실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공중 화장실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건물 등에 설치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약이 없고 설계자나 건축주의 의도에 따라 시설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본 원고에서는 국내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공중 화장실에 대한 현황 및 각종 기준과 공중 화장실의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의 공중 화장실이 나아가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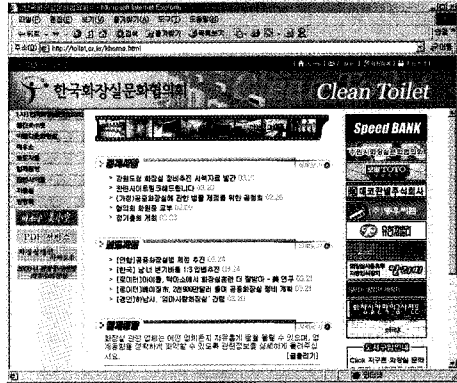


[그림1] 화장실문화시민연대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 2. 공중 화장실의 현황

### 2-1. 국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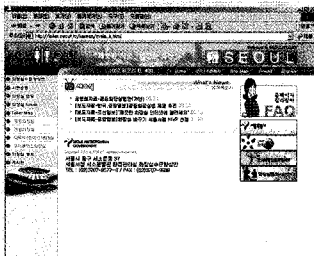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화장실에 관련된 인터넷 홈페이지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화장실 문화 시민연대의 홈페이지와 서울시 화장실수준 향상반의 홈페이지가 있다(그림 1, [그림 2]). 이중 먼저 생긴 것은 화장실문화시민연대의 것으로, 시민연대는 1999년 12월에 발족되었다.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시민연대의 창립취지문을 보면, 최근 들어 우리 화장실의 현주소와 특히 공공장소화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 화장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ASEM 국제회이나 한국관광의 해, 월드컵 등의 행사 개최가 계기가 된 것도 있지만, 시민의식과 소비 행태에 대한 반성, 개선 노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밀바탕 되고 있고, 우리 시민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기 위해, 작지만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얻는 여유가 생활의 활력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화장실문화시민연대"를 만들어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에 깨끗, 쾌적, 아름다운, 생각하는 문화 공간의 화장실이 있는 지역,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작은 노력을 시작한다고 되어있다. 홈페이지의 내용은 시민연대 소개 및 화장실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와 관련 법규, 서울지역에 대한 공중 화장실 실태조사 및 서울 지역 초등학교 화장실에 대한 것들이



[그림5]한국화장실문화협회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있다. 서울시는 외국의 경우보다는 조금 늦었기는 하지만 2000년 12월 서울시 화장실 수준 향상반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화장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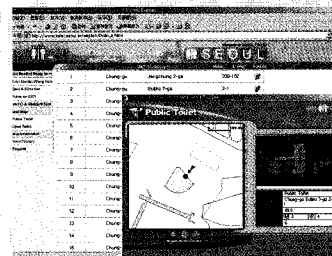
또한 이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의 홈페이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공중 화장실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의 구청별로 지도를 표시해서 지도를 클릭하면 공중 화장실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 [그림 4] 참조). 공중 화장실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주소와 면적, 화장실에 설치되어있는 남녀 변기의 수와 화장실의 약도까지 자세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교적 자세한 공중 화장실의 정보를 담고 있었는데, 한글 정보의 경우에는 지도를 클릭하면 자세한 정보가 나와서 그 위치를 찾을 수 있었지만, 영문 정보의 경우 주소는 영문으로 나오지만, 약도는 영문으로 표기되지 않아 외국인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림2]서울시화장실수준향상반 홈페이지 초기화면



[그림3]공중화장실 약도(한글)



[그림4]공중화장실 약도(영문)

외국은 영문으로만 홈페이지가 작성되고 있는 것에 비해 국문, 영문을 작성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한국화장실문화협회의 홈페이지 초기 화면을 나타낸 것으로 협의회의 홈페이지는 [그림 1]의 화장실문화시민연대, [그림 2]의 서울시 화장실 수준향상반 홈페이지에 비해 조금 이른 2000년 초에 처음 생긴 것으로 나와있다. 특징은 협의회에서 발간되는 잡지에 대한 내용과 보도자료 및 관련 업체 소개가 수록되어있는 것이다. 또한 자료실이 아주 많은 자료는 아니지만 꾸준히 갱신되고 있어, 화장실에 관한 자료를 찾고자 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협의회의 가장 큰 특색은 회원가입시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입회비 20,000원과 연회비 30,000원을, 기관 및 단체의 경우에는 입회비 200,000원과 연회비 120,000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원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데, 기관과 단체회원의 경우 자세한 주소와 전화번호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인회원의 경우도 명단과 주소, 전화번호가 공개되고 있다. 비교적 초기에 작성된 홈페이지로 꾸준한 보도자료의 갱신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그림 8]은 국내의 화장실 관련 홈페이지를 나타낸 것이다.

## 2-2. 외국의 사례

일본은 1984년에 몇몇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토일렛-토피아(toiletopia)회"를

중심으로 1985년 5월 15일에 "토일렛 환경의 개선과 새로운 화장실 문화의 창출"을 위해 일본 "토일렛(화장실) 협회"를 설립하였다.

매년 11월 10일을 화장실의 날로 정하고,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화장실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동시에 "good toilet 10賞"을 표창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 장애인 대응, 자연환경과 도시공원의 화장실 등 공공 화장실의 수준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국내의 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 교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노력은 1993년에 외국의 9개국을 초청하여 국제 토일렛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1995년에는 홍콩에서 열린 제2회 국제 토일렛 심포지엄을 지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실 협회의 회원도 유료 회원제로 하여 개인의 경우에 입회비는 2000엔(약 20,000원), 연회비는 6000엔(약 60,000원)이며, 법인이나 단체 회원은 50,000엔(약 500,000원)의 입회비와 연간 12만엔(약 1,200,000원)의 회비를 받고 있으며, 공익회원(관공서, 공익법인)은 연회비 12,000엔(약 120,000원)과 입회비 5,000엔(약 50,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실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사례 등은 우리나라의 홈페이지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는 일본 화장실 협회 홈페이지 초기화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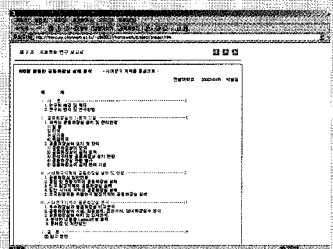
영국의 경우에는 화장실 협회가 1985년 생겼으며, 활동은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 시민연대와 유사하나, 일본과 경우와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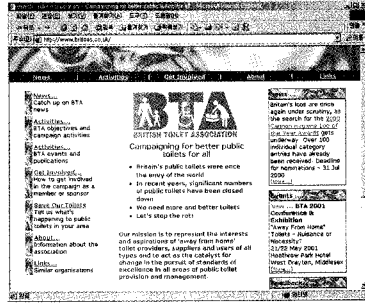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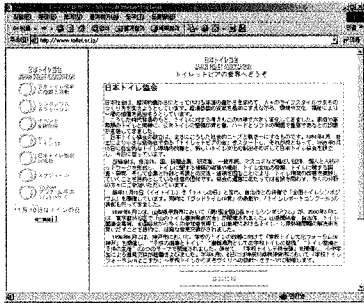
[그림6]국내 화장실관련 홈페이지 1



[그림7]국내 화장실관련 홈페이지 2



[그림8]국내 화장실관련 홈페이지 3



[그림9]일본화장실협회 홈페이지 초기화면(좌)  
[그림10]영국화장실협회 홈페이지 초기화면(우)

회원가입시 일정액의 회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체로 회원의 구분은 3가지 정도로 하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에는 아주 자세한 규정을 두어 적게는 23파운드(43,000원)부터 많게는 350파운드(650,000원)까지 연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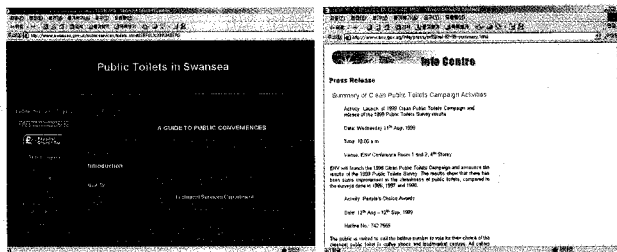
홈페이지는 거의 협회 홍보에 치중된 것으로, 자원봉사자 모집, 회원가입 안내 등 일반사항에 관한 것을 주로 볼 수 있다.

[그림 10]은 영국의 화장실 협회 홈페이지 초기화면이고, [그림 11]은 영국 Swansea시의 공중화장실 관련 홈페이지이며, [그림 12]는 싱가포르 환경부 홈페이지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조사자료이다.

[그림 11]은 영국의 Swansea시의 홈페이지로 공중 화장실에 관련된 예를 보면 공중 화장실의 위치, 화장실에 설치된 비품, 사용가능 시간대 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화장실 위치 정보에 비하면, 미흡한 정보이긴 하지만, 기타 영국의 다른 도시들과 비슷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지역의 홈페이지에는 이보다 더 자세한 정보가 나와있어,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사용 가능한 공중 화장실 및 유아를 위한 화장실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림 12]는 싱가포르의 경우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이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는 대체로 설계 조건 및 법제화에 대한 것들이 알려져 있는데 반드시 수세식 변기와 센서식 소변기 설치에 대한 사항과 의무적인 정기 점검제를 채택하여 점검을 게을리 하면 1,500\$(싱가포르 달러)의 벌금과 식당의 경우에는 벌점제를 가산하여 영업 정지, 허가 취소 등 비교적 엄한 처벌로 패적인 유지관리를 독려하고 있다. 물론 화장실 관리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용변을 본 후 씻어 내리지 않으면 150\$의 벌금을 물리고 휴지를 버려도 벌금을 부과하며 검은 판매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보건시간에 공중 화장실 사용을 위한 교육을 하며, 각종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매스컴에서도 불결한 공중 화장실을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물론 강제 조항에 관련된 것이지만 싱가포르 관리 당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환경부에서는 공중 화장실에 대한 각종 설문 조사를 1996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설문도 공무원이 보는 측면과 공중 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인, 그리고 사용자로 나누어 자세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그림11]영국 Swansea시의 공중화장실관련 홈페이지(좌)  
[그림12]싱가포르 환경부의 홈페이지 조사자료(우)